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캠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109)(12/31/2021)

제 3 권 내적 위로

제 12 장 인내를 배워서 악한 정욕들에 맞서 싸움, 4-6 절

시 68:2 - 연기가 불려 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 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시 37:4 -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4. 보라. 이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들은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고, 그들이 지난날에 누렸던 즐거움들은 기억조차 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그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힘들거나 괴롭거나 두려운 것은 전혀 없이, 오로지 즐거움만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는 바로 그 일들로 인하여, 그들은 흔히 괴로움이라는 형벌도 아울러 받게 되기 때문이다. 그들의 삶은 결코 합당한 즐거움들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즐거움을 누리며 동시에 괴로움과 수치를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5. 오, 그들이 누리는 그 모든 즐거움들은 얼마나 일시적이고, 얼마나 거짓되며,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부끄러운 것들인가! 하지만 사람들은 얼이 빠지고 눈이 멀어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말 못하는 짐승들이 되어서, 이 부패하고 타락한 삶이 주는 한 줌의 쾌락을 누리기 위하여, 영혼의 죽음을 자초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네 정욕을 따르지 말고, 네 욕망을 멀리하며,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네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6. 네가 내게서 참된 즐거움과 풍성한 위로를 얻고자 하여,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멸시하고, 온갖 덧없는 즐거움들을 피한다면, 그것은 네게 복이 될 것이고, 풍성한 위로가 네게 주어질 것이다. 온갖 피조물로부터 오는 위로를 멀리하면 할수록, 내 안에서 더욱 달콤하고 강력한 위로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위로를 얻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어느 정도 괴롭고 힘든 싸움의 과정을 겪어야 한다. 몸에 밴 습성이 반기를 들 것이지만, 결국에는 더 나은 습성에 의해서 극복될 것이다. 육신이 반복적으로 불평을 터뜨릴 것이지만, 결국에는 영혼의 열심에 의해서 재갈이 물려지게 될 것이다. 옛 뱀이 너를 충동질하고 괴롭게 할 것이지만, 너의 기도로 말미암아 네게서 도망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너의 간절한 기도에 의해서 옛 뱀의 접근 자체가 거의 봉쇄될 것이다.

말씀과 해설:

이 땅의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 필요한 영적 인내의 덕목을 가진 성도들은 이 땅에서 쉬운 길, 넓은 길, 평탄한 길만 가려고 하지 않고, 비록 어렵고, 좁고, 거칠더라도 가야할 길이라면 걸어간다는 결단과 담력을 가진다. **마 7:13 -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 때의 넓은 문이란 우리가 들어가서는 안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문제는, 우리 자신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 좋은 길, 쉬운 길, 넓은 길을 선택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쉽고 어렵고, 혹은 넓고 좁고를 떠나 우리가 가야할 길을 갈 때 바로 거기에 진정한 승리와 복이 있다는 것이다. 만약 좁고 험악한 길이라 하더라도 그 길이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이며, 그 길이 구원의 길이라면, 그리고 그 길이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라면 그 좁은 길로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다.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면서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주님의 길은 말 그대로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척박한 길임을 알게 한다.

쉽고, 넓고, 평탄한 길을 걸어가고 싶은 마음은 주님과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당할 수 있는 고난 보다는 최악된 이 세상의 온갖 쾌락과 즐거움을 더 좋아하고 거기에 탐닉하기 쉬운 마음이다. 이러한 마음은 주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도 언제든지 가질 수 있는 마음이다. 바울은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고 부탁하면서,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딤후 4:10)라고 말했다. 우리 중 누구라도 데마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음을 알고 늘 스스로 주의하고 깨어 있기 위해 애써야 한다.

요한은 요일 2:15-17 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정욕과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경계하였다. **요일 2:15-17 - 15.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이며, 주님의 뜻이지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다.**

성경은 우리의 유일한 위로와 기쁨과 소망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하나님 그 자체라고 말씀한다. **고후 1:4 -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주님의 가치와 사명을 취하는 사람, 아무리 좁고 험악하더라도 주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이면 인내를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넓은 길, 쉬운 길, 평탄한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벧전 5:10 -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므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자.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선택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므로 참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2.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선교지와 기관들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강력한 주님의 능력으로 구원과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게 하옵소서.
3.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말씀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자라나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목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